

- 목 차 -

I. 조사개요

II. 연봉제 실태조사 결과

III.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

IV. 향후계획

I. 조사개요

조사기간 : 2000.1.3~1.15(2000.1월 현재 기준)

조사대상 : 근로자100인이상 사업장 5,116개소(4,052개소 응답)

조사내용 :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여부 및 운영실태

조사방식 : 지방관서를 통한 우편 팩스조사(자계식)

II. 연봉제 실태조사 결과

"연봉제"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책정하는 個人別 成果給制

【 조사내용 】

연봉제 실시여부

연봉제 실시사업장의 분포

업종별

기업규모별

공공부문 민간부문

노조유무 및 소속그룹별

연봉제 도입 동기

연봉제의 대상직급 및 인원비중

임금총액중 변동급 비중

연봉삭감 여부 및 퇴직금 처리

연봉산정을 위한 평가방식

연봉제 운영상 애로사항

연봉제 실시효과

연봉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

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계획 여부

1. 연봉제 실시여부

2000.1월 현재 응답사업장 4,052개소의 23.0%(100인이상 사업장5,116개소의 18.2%)인 932개소에서 연봉제 실시도입준비중인 사업장은 732개소(17.8%), 추후 도입예정인 사업장은 490개소(12.1%)

연도별 실시업체수는 '96년 94개소, '97년 205개소 '99년 649개소 2000년 932개소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

2. 연봉제 실시사업장의 분포

업종별

전기, 가스, 수도사업이 20개소중 7개소(35.0%), 금융 및 보험업은 158개소중 46개소(29.1%)가 실시하여 실시율이 높은 편

제조업은 2,375개소중 480개소(20.2%)가 실시

기업규모별

1,000인이상 사업장 373개소중 130개소(34.9%)가 실시하는 등 기업규모가 클수록 실시비율이 높은 편

공공부문, 민간부문

공공부문 사업장은 152개소중 80개소(52.6%)가 실시하여 민간부문(852개소, 17.2%)보다 상당히 높은 편

노조유무 및 소속그룹별

노조 없는 사업장은 2,126개소중 418개소(19.7%)가 실시하여 노조 있는 사업장(17.2%)보다 실시율이 높은 편

30대그룹 계열사는 375개소중 162개소(43.2%)가 실시한 반면, 비30대그룹 사업장은 16.2%가 연봉제 실시

3. 연봉제 도입동기

연봉제 도입동기에 대해 실시업체중 48.3%(450개소)가 생산성 향상, 36.5%(340개소)가 인력 또는 임금관리 용이라고 응답

4. 연봉제의 대상직급 및 인원비중

실시업체중 44.2%(412개소)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과장급 이상 실시업체는 27.3%(254개소)

실제 적용인원은 전체근로자의 50%이상이 실시업체의 32.2%(300개소)인 반면, 10%미만도 25.2%(235개소)

5. 연봉액중 변동급 비중

연봉액중 변동급의 비중은 10-29%가 39.1%(364개소), 10%미만이 36.7%(342

개소)로 대부분 30%미만으로 운영

6. 연봉삭감 여부 및 퇴직금 처리

실시업체중 연봉을 삭감한 업체(488개소, 52.4%)가 삭감하지 않은 업체(418개소, 44.8%)보다 다소 높은 편

퇴직금은 63.1%(588개소)가 기존방식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반면,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업체도 27.9%(260개소)

7.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방식

실시업체중 73.3%(655개소)가 연봉산정시 개인업적과 집단업적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으며 56.8%(529개소)가 절대 상대평가를 통해 업적평가 실시

8. 연봉제 운영상 애로사항

실시업체중 40.9%(381개소)가 인사고과문제를, 31.7%(295개소)가 목표관리문제를 연봉제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응답

9. 연봉제 실시효과

연봉제 실시업체중 44.8%(418개소)가 연봉제 실시후 직원들의 태도변화에 효과가 컸다고 응답

임금 및 인력관리는 40.9%(381개소),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35.3%(329개소)가 효과가 컸다고 응답

반면,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는 23.7%(221개소)가 오히려 효과가 작았다고 응답
이는 연봉제를 생산성 향상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체인건비를 고정시킨 채 개인간 연봉격차 조정에 의한 결과로서 직원간 과다경쟁, 위화감 조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의미

10. 연봉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

실시업체중 43.2%(403개소)가 평가에 대한 불신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단기실적 치중(158개소, 17.0%), 고용불안 확산(114개소, 12.2%)도 연봉제실시에 따른 큰 부작용

11.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계획 여부

실시업체중 49.7%(463개소)가 향후 연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반면, 현행유지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41.6%(388개소)

Ⅲ.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

"성과배분제"는 기업 부서단위의 경영성과가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현금·주식·복지기금 등의 형태로 集團的 事後的으로 배분하는 變動的 補償制度.

【 조사내용 】

성과배분제 실시여부

성과배분제 실시사업장의 분포

업종별

기업규모별

공공부문·민간부문

노조유무 및 소속그룹별

성과배분제 적용대상 및 인원 비중

성과배분에 대한 목표설정 방법

성과배분기준

성과배분의 지급형태

성과배분의 지급방식

성과배분액의 규모

성과배분 지급시기

성과배분제 도입효과

성과배분제 확대계획 여부

1. 성과배분제 실시여부

2000.1월 현재 응답사업장 4,052개소의 20.6%(100인 이상 사업장 5,116개소의 16.3%)인 833개소에서 성과배분제 실시

도입준비중인 사업장은 499개소(12.3%), 추후 도입예정인 사업장은 494개소(12.2%) 연도별 실시업체수는 '96년 334개소, '97년 405개소, '99년 689개소 2000년 833개소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

2. 성과배분제 실시사업장의 분포

업종별

금융 및 보험업이 158개소중 38개소(24.1%), 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은 171개소중 37개소(21.6%)가 실시하여 실시율이 높은 편
제조업은 2,375개소중 472개소(19.9%)가 실시

기업규모별

1,000인 이상 사업장 373개소중 94개소(25.2%)가 실시하는 등 기업규모가 클수록 실시비율이 높은 편

공공부문, 민간부문

공공부문 사업장은 152개소중 45개소(29.6%)가 실시하여 민간부문(788개소, 15.9%)보다 높은 편

노조유무 및 소속그룹별

노조 없는 사업장은 2,126개소중 385개소(18.1%)가 실시하여 노조 있는 사업장(15.0%)보다 실시율이 높은 편

30대그룹 계열사는 375개소중 108개소(28.8%)가 실시한 반면, 비30대그룹 사업장은 15.3%가 성과배분제 실시

3. 성과배분제 적용대상 및 인원 비중

실시업체중 70.3%(586개소)가 전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기타 영업직(23.8%) 생산직(19.8%) 순.

성과배분제 적용인원은 전체근로자의 50%이상이 74.5%(621개소)인 반면, 10% 미만은 4.9%(41개소).

4.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방법

성과에 대한 목표는 실시업체중 67.4%(561개소)가 노사협의회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응답.

5. 성과배분 기준

성과배분시 이익기준을 사용하는 업체가 실시업체중 66.1%(551개소)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매출액기준(60.5%), 부가가치(생산성)기준(48.6%)도 많이 사용

6. 성과배분의 지급형태

실시업체중 92.6%(771개소)가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대부분 현금으로 성과배분을 지급, 내복지기금, 주식 등으로 지급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

7. 성과배분 지급방식

성과배분액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이

30.1%(251개소)로 가장 많으며 임금수준 비례지급은 29.3%(244개소), 부서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은 19.9%(166개소)

8. 성과배분액 규모

근로자 1인당 연간 성과배분액의 총규모는 월평균통산임금 대비 10-29%가 20.5%(171개소)로 가장 많으며 200% 이상 지급업체도 11.9%(99개소)

9. 성과배분 지급시기

연1회 지급하는 업체가 실시업체중 41.3%(344개소)로 가장 많으며, 매월 지급하는 업체도 18.8%(157개소)

10. 성과배분제의 도입효과

성과배분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은 60.0%(500개소), 협력적 노사관계는 42.0%(408개소)가 효과가 컸다고 응답한 반면 과반수 사업장이 경영위기 극복,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
이는 성과배분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증가하였음을 의미

11. 성과배분제의 확대계획 여부

실시업체중 39.4%(328개소)가 향후 성과배분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반면, 현행유지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51.3%(427개소)

IV. 향후계획

조사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은 『2000년 임금교섭 권고방향』에 반영, 각종 교육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시 활용

- 제도도입 이전에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勞使間 충분한 協議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지도
- 제도도입시 관계법령에 따른 法的節次를 반드시 준수토록 지도
- 임금삭감, 노조활동 제약 등의 手段으로 활용 방지 등 副作用 防止를 위한 지도 強化

연·월차휴가수당의 연봉액 포함 금지 및 연봉에 퇴직금 포함시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

성과배분은 기업경영 성과에 따른 事後補償이므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과는 別途로 운영하도록 지도

※ 단기실적 치중·직원간 과도경쟁 등 연봉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·부서단위의 집단적 성과보상제도인 성과배분제를 도입하여 조직적 융화

와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지도

임금제도사례집 발간 배포

-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운영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지방노동관서 관련부처 노사 등에 배포 (약 12,000부, 4-5월)

성과배분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

- 성과배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방안 강구 (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추진)

실태조사 결과 요약

조사개요

조사기간 : 2000.1.3~1.15 (2000.1월 현재 기준)

조사대상 : 100인이상 사업장 5,116개소 (4,052개소 응답)

조사내용 : 연봉제 성과배분제 도입여부 및 운영실태

조사방식 : 지방관서를 통한 우편 팩스조사

조사결과

< 연 봉 제 >

연봉제 실시사업장은 932개소로 해마다 실시업체수 실시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.

응답 사업장 4,052개소의 23.0%, 100인이상 사업장 5,116개소의 18.2% 도입준비중 및 추후 도입계획은 1,213개소 (29.9%)

업종별로는 전기, 가스, 수도사업(35.0%), 금융 및 보험업(29.1%)의 실시비율이 높으며 (제조업 20.0%) 대기업, 공공부문, 노조없는 사업장, 30대그룹 계열사의 실시비율이 높은 편.

기업규모별 실시비율 : 100-299인 14.2%, 1,000인이상 34.9%, 공공부문 52.6%), 민간부문(17.2%), 무노조(19.7%) 유노조(17.2%), 30대그룹(43.2%) 비 30대그룹(16.2%).

연봉제 실시업체의 주된 도입동기는 생산성 향상(48.3%), 인력 또는 임금관리의 용이(36.5%)로 응답.

연봉제 적용대상은 전직원 대상이 가장 많고(44.2%), 과장급이상은 27.3%

실제 적용대상 인원의 비중은 전체근로자의 50%이상이 가장 많은(32.2%) 반면, 10%미만도 25.2%.

연봉액중 변동급 비중은 10~19%가 39.1%, 10% 미만인 36.7%로 대부분 30% 미만으로 운영.

연봉제 실시이후 직원들의 태도변화, 임금 인력관리,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크나, 인건비 절감효과는 작은 편.

문제점으로는 평가에 대한 불신(43.2%), 단기실적에 치중(17.0%), 고용불안 확산(12.2%) 등.

연봉제 실시업체의 49.7%가 향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반면, 현행유지 계획인 업체도 41.6%.

< 성과배분제 >

성과배분제 실시사업장은 833개소로 해마다 실시업체수 실시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.

응답 사업장 4,052개소의 20.6%, 100인이상 사업장 5,116개소의 16.3%

도입준비중 및 추후 도입계획은 993개소 (24.5%).

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(24.1%), 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(21.6%)의 실시비율이 높으며 (제조업 19.9%).

대기업, 공공부문, 노조없는 사업장, 30대그룹 계열사의 실시비율이 높은 편.

기업규모별 실시비율 : 100-299인 13.8%, 1,000인이상 25.2%

공공부문(29.6%) 민간부문(15.9%), 무노조(18.1%) 유노조(15.0%), 30대그룹(28.8%) 비30대그룹(15.3%).

성과배분제 실시업체의 70.3%가 전부서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, 기타 영업직(23.8%) 생산직(19.8%) 순.

성과에 대한 목표는 실시업체중 과반수가 넘는 업체(67.4%)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.

성과배분기준은 이익기준이 가장 많으며(66.1%), 매출액기준(60.5%), 부가가치 기준(48.6%) 순.

성과배분 지급시 대부분의 사업장(92.6%)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, 사내복지기금 주식 지급은 거의 없음.

성과배분 지급방식은 개인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이 가장 많으며(30.1%), 임금수준 비례지급이 29.3%.

1인당 연간 성과배분액은 월통상임금의 10-29%가 가장 많으며(20.5%), 200% 이상도 11.9%.

성과배분기 생산성 향상(60.0%)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(42.0%) 및 경영위기 극복(38.7%)에 효과가 컸다고 응답.

실시업체중 39.4%가 향후 성과배분제를 확대할 계획인 반면, 현행유지 계획인 업체도 51.3%.

향후계획

조사결과는 『2000년 임금교섭 권고방향』에 반영, 각종 교육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시 적극 활용

※ 단기실적 치중·직원간 과도경쟁 등 연봉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·부서단위의 집단적 성과보상제도인 성과배분제를 도입하여 조직적 융화와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지도

연봉제·성과배분제 실시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조사·분석하여 『임금제도사례집』 발간·배포 (4-5월)

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성과배분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.